

# 大學專門研究所의 基盤造成

文獻資料室과의 聯關에서

王 仁

權 (서울大農經濟學科教授)

지난 겨울放學에는 美國의 Rockefeller Foundation이 運營하는 伊太利 北部所在(Lake Como 부근)의 “Bellagio Study and Conference Center”에 “Scholar-in-Residence”로 招請되어 獨立的 研究을 할 機會를 얻었다. 그런데 이 計劃이 실시되기에 앞서서 英國政府의 The British Council의 配慮로 10餘日間 英國에 들러 「開發研究」(development studies) 關係의 大學機構를 여섯 군데 찾아가서 責任者를 위시한 教授들과 意見을 나누었으며, 可能한 限 여러 가지 局面을 살피도록 힘썼다. 또한 學期初인데도 불구하고 네 곳에서는 우리 나라의 새마을運動과 農村開發에 관하여 特講을 베풀고 質疑와 討議의 時間도 가졌었다.

그 결과 「開發研究=開發途上國研究=農村開發研究=農村社會科學的 또는 農村行動科學的 研究」의 等式 또는 準等式이 定立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筆者가 소속된 農科大學의 「農業開發研究所」는 그리 짧지 않은 歷史를 지녔는데 아직도 體制化(institutionalization)가 거의 안 되었으며, 따라서 本格的인 期待役割에 크게 미흡되는 것임을 個人的으로 知覺하여 왔고 또한 많은 우리 나라의 大學研究所가 우리의 경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하다고 들어 왔기 때문에, 비록 짧은 物理的 時間이었지만 살필 것은 죄다 살피도록 努力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의 많은 見聞을 補強的으로 얻은 셈이나 여기에서는 大學研究所마다 거의 必須的으로 뒤따라야 할 文獻資料室(document center)의 測期的으로 完璧하고 效率的인 完成을 위한 提言을 하기로 한다.

文獻資料室은 基本的으로 大學圖書館(中央的)과 有機的으로 密接한 機能的 相互關係를 保持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區別될 수가 있으며, 區別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區別되고 있는 경우가 支配的이었다. 筆者가 살피본 大學校의 「開發研究」를 위한 研究所 또는 大學의 文獻資料室은 大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屬性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로 商業的인 一般的 性格의 單行本冊은 圖書館에 맡기고 모든 開發途上國에 관한 農業을 中軸으로 하기는 하되 可用的인 모든 分野에 걸친 公式的 및 非公式的인 民間的, 公共的, 政府的, 그리고 國際的인 調查報告書, 建議書, 세미

나 報告書, 統計調查報告書 등을 갖추고 있었다. 相當量의 所藏資料는 現在의 우리로서는 獨自의 으르 얻기가 매우 어렵거나 不可能한 것이었다고 본다. 둘째로는 예컨대 南阿의 Lesotho 國의 林業에 관한 資料는, 혹은 Computer 로 혹은 大型의 手動式인 藏書資料/國家別穿孔板(이의 公式의 名稱은 잊었음)을 利用하여 손쉽게 찾아 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었다. 물론 傳統的인 파일箱도 備置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모든 聯關의 民間的, 公共的, 政府의, 그리고 國際的인 機構와 커뮤니케이션을 트고 있었다. 물론 모든 出版社의 新刊情報도 自動的으로 流入케 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最新의 情報가 可用의이었었다.

日淺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資源面, 政策支援面에서 制約 내지 拘束이 너무나도 큰 대부분의 우리 나라 大學校의 附設研究所일 것은 相當程度로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學의 基本的 機能인 研究뿐만 아니라 教育을 質的으로 크게 改善, 提高시키기 위해서는 各 大學校의 專門化的인 研究所가 제대로 機能하여야만 한다. 研究所의 體制建設(institution building)의 主要課題 中의 하나가 다름 아닌 專門化的인 文獻資料室의 完備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文獻資料室을 어떻게 가장 能率的이며 效果的으로 뒤늦게나마 最新的으로 完壁하게 갖추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날 특히 工業技術面에서 國際技術移轉(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의 必要와 問題가 크게 浮刻되고 있음을 日常的으로 目擊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文獻資料室의 國際移轉의 企劃實踐을 提言하는 바이다.

보다 具體的으로는 言語關係와 研究施設 其他를 고려하여 英國이나 美國의 大學校의 特定 專門研究所 하나를 選定交涉하고 出版社에서 購入이 可能한 商業的 刊行社를 除外하고는 모든 文獻資料를 마이크로 필름으로서가 아니라 電子複寫機로 原型대로 複寫하여 아주 옮김으로써 「基盤」을 最短時日內에 完壁하게 完成하자는 것이다. 量的으로 國民學校 教室 1~2個 程度의 크기의 資料室이 될 것이다. 經費를 推定한 바는 없으나 友好國間의 國際協力の 테두리 안에서 특

別 考慮될 수도 있고 또한 當該政府 關聯機構 또는 有數한 現地 獎學財團의 全幅的인 協助를 期待할 수도 있는 豫算資源規模의 것이며 보람있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日本의 것도 追加的으로 考慮하여 마땅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大學校 豫算에 의한 商業的 刊行社의 購入인데 이것도 크나큰 豫算이 所要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짐작하는 바이다. 特殊한 研究所의 경우는 例外가 될 것이지만 高度로 專門化된 大學研究所일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數많은 學術雜誌에 散在的으로 發表되어 있는 關聯論文의 경우도 有數한 關係研究所에 別刷形態로 備藏되어 있는 것을 얻거나 또는 複寫하거나, 아니면 關係研究所에서 週期的으로 刊行하는 近刊 論文錄에 따라서 複寫하여 옮겨 놓는다.

넷째로는 以上の 「文獻資料室의 國際移轉」에 接續하여 聯關的인 民間的, 公共的, 政府의 그리고 國際的 諸機構와 「文獻交換」을 내세워 커뮤니케이션을 開設하면 關聯資料는 自動的 持續的으로 入手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일일이 購讀할 수가 없는 수많은 學術誌에 發表되는 關聯論文은 先進國의 關聯研究所에서 刊行하는 近刊 論文錄에 의거하여 同研究所의 協調를 얻어 複寫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많은 大學研究所에서는 關聯論文을 別刷로 만들어 利用케 하고 있다.

以上에서 다른 條件이 같다고 할 때에 大學研究所의 基盤造成的 體制建設課題 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文獻資料室의 國際技術移轉的인, 效率的인 完備方案을 극히 簡略하게 提案하였다. 關心을 같이하는 國內大學校의 研究所들이 協同的으로 이와 같은 劃期的으로 效率的인 努力을 배울 수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明示的으로, 그리고 暗默的으로 「開發研究」에 관한 大學研究所의 國際的 次元의 體制建設의 한 局面을 對象하였으나 이와 같은 接近은 普遍的으로 널리 適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日淺하고 成長過程에 있는 우리 나라의 大學이 劃期的으로 成熟함으로써 內實을 期할 수가 있으며, 國家發展에 크게 寄與하고, 國際的 隊列에 제 자리를 함께 할 수가 있을 것이다. \*